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사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

(나)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뒤편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움짖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이 피기 전 철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대상이다.
- ② ㉢은 ㉠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을 지향하는 동시에 ㉠이 존재하는 ㉡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이는 대상이다.
- ⑤ ㉤은 ㉡에서 제시되고 있는 감각적 심상의 구체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읽고 보인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소월의 시에는 가장 단조로운 시적 형식을 드러내면서도 정서의 깊이를 잘 간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는 시의 화자가 자연을 동경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자가 자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연에 귀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주목한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시 『산유화에 대표적으로 반영되었다. 비슷한 시기 정지용의 작품에는 시적 대상에 대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선명한 심상과 절제된 언어가 담겨 있다. 그의 작품들은 1930년대 중반의 종교적인 구도의 세계를 노래한 일련의 시들을 제외하면 거의 일관되게 시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노래하는 경향을 보인다.

- ① (가)의 '저만치'에서 화자가 자연에 귀의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가)의 첫 연과 끝 연이 대응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조로우면서도 정서의 깊이를 잘 간직하고 있는 시인의 시적 경향이 드러나는군.
- ③ (나)의 '향기로우니'라는 표현을 보아 화자가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도자로서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의 '아침'은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시인의 일관된 시적 경향을 드러내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가)의 '산'과 (나)의 '뒤편리'는 화자가 자연을 동경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군.